
2022

Porter Prize Excellence in CSV

제9회 CSV·ESG 포터상 우수기업 사례집



한국수자원공사

세상에 행복을 水놓는 물 종합 플랫폼 기업, K-water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K-water의 업 특성을 살린 특화된 CSV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ackground(배경)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30여 년간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왔다. 특히 업 특성을 살린 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과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는 고령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소멸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K-water는 이런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관의 본질적 역할 이행,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CSV활동 체계를 정립하여 연 700억 규모의 지역상생활동을 추진 중이다.

Activities

1) 업역과 연계한 주민 소득·일자리 창출:

K-water의 주요 사업지역인 댐 상류 지역은 오랜 시간 개발 규제에 묶여 '댐 때문에 가난하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날로 커지는 도시와의 소득격차와 양질의 일자리 부재는 지역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지방소멸 현상까지 유발하고 있다. K-water는 30여년에 이르는 오랜 지역 상생 경험을 바탕으로 '업역과 연계된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와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천 자율관리 협동조합) 매년 홍수기마다 밀려오는 하천 부유물 쓰레기 수거를 위해 K-water는

매년 약 70억원의 수거비를 투입하고 있었다. 이 부유물 쓰레기를 수거용역 대신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협동조합이 수거를 맡아 유역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CSV 모델이다. 이 사업은 '플라스틱 방앗간'으로 발전하여, 수거된 부유 쓰레기 중 처리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업사이클링하여 제품으로 생산·판매하면서 지역 일자리와 소득을 추가적으로 창출하고 상생의 의미를 더욱 고취시키고 있다.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K-water는 합천호 수면에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기존 태양광의 문제점인 산림파괴 없이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이 투자자로 직접 참여하여 친환경에너지와 주민소득 증진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한다. 투자한 주민들은 20년간 연 10%의 수익을 보장받으며, 합천의 군화(群花)인 매화를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발전소 자체도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에코마켓) 유희부지를 활용해 지역 특산물 직판장을 운영하는 에코마켓은 일자리-소득-재투자 선순환으로 지속 추진 가능한 지역공동체 회복 모델이다. 20년 주암댐에서 처음 시작한 에코마켓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K-water를 대표하는 지역사회 발전모델이 되었다.

에코마켓은 지역 청년을 채용해 지역주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의 20%를 지역사회에 장학금, 농촌교육, 복지제공 등으로 환원하고 있다.

기관 역할, 지역 문제해결, 경제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CSV 활동



2)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 복지 실현”, “지역 미래인재 장기 육성”,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특화된 CSV활동을 추진중이다.

(행복가득수 프로젝트) 14년부터 9년간 지속된 장기 프로젝트로, K-water의 업 특성을 살려 소외계층·복지 시설의 물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방과 화장실 등 물 사용환경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물 전문 공기업 K-water는 누구나 집에서 깨끗한 물을 편하게 사용 가능한 보편적 물복지 달성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단순한 집수리를 넘어 시공과정에 자활기업이 시공자로 참여해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소득 증진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K-water 장학회) 지역사회 인재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인재를 장기 육성하기 위해 K-water 장학회 미래육성장학금이 출범했다. 중고등학생 200명을 선발하여 최대 5년간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단순한 장학금 지원뿐 아니라 1:1멘토링, 희망직업 현직자 초청 간담회, 전문기관의 진학·취업·심리상담 등 실질적인 학생의 성장을 위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방문진료 서비스) 수도권 집중화 및 도시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K-water는 원주의료조합과 협업 독거노인 가구에 월 2회 왕진 의사가 방문하여 진료하는 My Own Doctor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Performance(성과)

-하천자율협동조합사업을 통해 대청·용담·주암·합천·소양강 5개 댐조합을 설립해 지역일자리 152개, 연간 주민소득 3.5억원을 창출했고, 실시간 유역환경 감시로 하천쓰레기 발생을 최대 90% 저감했으며, 하천쓰레기의 97%는 재활용했다. 총 11개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수상태양광으로 연간 56GWh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6만명이 사용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으로 연간 미세먼지 28톤, 온실가스 2.6만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연간10%의 수익은 참여주민1,400명에게 공유된다.

-에코마켓에서 지역 농산물 1.5억원 규모를 소비하고, 주민소득 3.7억원, 일자리 134개를 창출했다.

-행복가득수로 9년간 700가구의 물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자활기업 일자리 5,600개를 창출했다.

Future(계획)

K-water는 이후로도 특화된 CSV활동을 추진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전국적인 상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발굴하고, 기존 CSV 프로젝트들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간다. CSV활동에 최신 ICT 기술을 도입하고, 본업인 사회안전망 서비스와 융합하는 등 세상에 행복을 물놓는 물 종합 플랫폼 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 이어진다.